

전남

화순 자연벌꿀 福清 아시나요

동북면 유천리 주민들 공중진상품 명맥 잇기 한창 모후산 자연암반 벌통 설치 직접 채취 약효 탁월

“꿀 색깔이 어떤가요? 맑지요. 그래서 맑을 청(淸)자를 써서 ‘복청(福淸)’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2일 찾은 화순군 동북면 유천리 모후산 자락.

마을입구에서 산길을 따라 15분여를 올라가자 비를 피할 수 있는 ‘노셀바위’ 아래에 벌통이 놓여있었다. 지난 2008년 귀농한 강국주(48)씨는 능숙한 솜씨로 벌통 틈새를 막은 종이 테이프를 떼어내고 벌통을 들어냈다. 순간 보금자리의 위기를 알아챈 수천마리의 벌떼들이 어지러이 비행했다. 30cm 길이의 벌집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통에 나눠 담기까지 걸린 시간은 30여 분.

벌집 중간 밑부분은 꿀과 꽃가루·에벌레 집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손수하게 꿀만 채우는 위쪽 일부분만 상품화할 수 있다.

화순 동북면 유천리 주민들이 자연

벌꿀인 ‘복청’ 명맥 잇기와 상품화에 발 벗고 나섰다. 동북 ‘복청’은 예로부터 복삼(福蔘)·복천어(福川魚)와 함께 ‘삼복(三福)’으로 일컬어졌으며 조선 초기부터 궁중에 진상돼 왔다.

하지만 1970~1980년대 들어 치산(治山) 녹화 사업에 따라 밀원(蜜源)인 1~2년생 초본이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복청’ 생산량이 줄며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다.

동북 ‘복청’은 전통적으로 야산 암반에 벌통을 놓아 자연의 벌들이 꿀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4월 하순께 산에 벌통을 갔다 놓은 후 40~60일간 잠만 잔 꿀을 모았다가 따낸다. 환경부 지정 ‘생태 우수마을’인 유천리는 240여 종의 약용식물이 자생하는 모후산을 끼고 있는 탓에 복청의 약효 또한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복청’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



강국주씨가 화순 동북면 모후산자락에서 친환경 자연벌꿀인 ‘복청(福淸)’을 채취하고 있다. /화순=송기동기자 song@

은 강씨를 포함해 10여명, ‘복청’의 진가(眞價)를 아는 소비자들은 600g 당 10만원선인 높은 가격에도 직거래로 사가고 있다. 유천리 ‘복청’ 생산 농업인 양현은 “복청 생산 농민은 모후산 일원에 헛개나무 등 100만 그루의 밀원수를 대대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

다. /송기동기자 song@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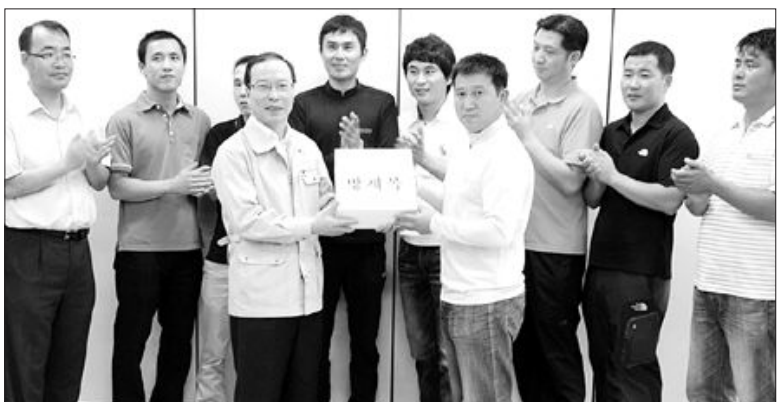
여수 시내버스 전격 파업

을 임단협 결렬

여수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5일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파업에 따라 여수여객·동양교통·오동운수 등 여수지역 3개회사 시내버스 179대 운항이 중단됐다.

여수시는 이날 버스 파업에 맞춰 130대의 전세버스를 버스노선에 투입하는 한편 250여명의 공무원들이 버스에 탑승시켜 노선안내에 나서 등 비상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여수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놓고 최근 7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고, 지방노동위 조정안도 양측이 거부하면서 이번 파업으로 이어졌다. /중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전남농협지회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최근 농약살포 등 농작업 문제해결을 위해 ‘농협 공동방제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무인헬기 조종사에게 방제복 134벌을 전달했다. (전남농협 제공)

친환경 곤충산업 소득원 육성

전남도, 생산·유통체계 구축 등 계획안 수립

전남도가 친환경 곤충산업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한다. 전남도는 오는 2020년 7000억원대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곤충시장 선점을 위해 ▲곤충 생산·유통체계 구축 ▲전문인력 육성 ▲생태공간 조성 ▲산업화 인프라 구축 지원(R&D)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곤충산업 육성계획안’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육성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곤충생산·체형시설, 자원화시설, 유통회사 설립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 사육농가 양성 및 상담 지원 등에 나선다. 또 생태공간 조성을 위해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곤충자원의 산업화 인프라 구축(R&D)을 위해 기능성 소재 개발과 환경생태 대대 및 사료화 기술 연구 등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육성 계획안에 ▲농가의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지원 ▲전락

품종의 선별 집중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방안 등을 반영해 8월중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여름방학 광양제철 오세요 공장 견학 프로그램 마련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여름방학 등을 이용한 본격적인 공장 견학철을 맞아 최근 공장견학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견학프로그램은 영상관람·열연공장 내부 견학과 함께 연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3회에 걸쳐 운영된다. 문의(061-790-2447) /중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pyj4079@

■ 민선 5기 단제장에 듣는다

임성훈 나주시장

“기업유치·인구증대 최우선”

“상식이 통하는 소통(疏通)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지난 10년간 지속된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경제와 서민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며 “지역화합을 이룬 뒤 시민이 힘을 합하면 경제를 살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장은 “선거기간 나주에 만연한 위기감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달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확인했다”며 “기업 유치와 인구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혁신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



보유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인근에 뉴시티 스포츠·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해 경제는 물론 스포츠와 문화·오락이 함께하는 새로운 모델도시 건설도 임 시장의 복안이다.

또 임 시장은 “고대 마한에서 근대에 이르는 역사문화유적과 영산포 선창·수산물·일본산 가옥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와 역사문화 자원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드는 문화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도·농 균형발전 이루고 ‘일자리 창출’ 앞장

혁신도시 인근 스포츠·문화 복합단지 조성

를 밝혔다. 성공한 벤처기업인으로 잘 알려진 임 시장이 앞으로 펼칠 시정의 핵심은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나주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나주 ▲혁신도시 건설 ▲기업유치의 경제도시 나주로 요약된다.

임시장은 과거 나주는 복지와 교육이 ‘개발’에 밀렸고 ‘개발’은 됐지만,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임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전업농가를 산업인력으로 유인하고 선진농업의 다양한 기술과 조직 및 판매 마케팅을 도입해 중간상인의 배만 채우는 유통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대규모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으로 판로를 확대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시장은 “농가의 빛 대부분이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것이다”며 “앞으로 농가가 직접 농기계를

■ 새 얼굴

“주민 섬기는 ‘정성치안’ 실현”

오영기 장흥경찰서장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주민을 섬기는 ‘정성치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2일 취임한 오영기(56) 장흥경찰서장은 “과거를 답습하는 구태를 버리고 진정 주민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창의적 정신마인드가 필요하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제출하신 오서장은 제주 제 일고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6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제주 서귀포서장·제주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준남씨와 1남3녀가 있다. 취미는 등산. /중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100년 묵은 측량민원 해결

구례군 36필지 새 지적도면 제작

구례군의 100년 묵은 측량민원 해결됐다. 구례군은 최근 실제 건물 위치와 지적도면이 맞지 않는 구례읍 봉남리 76필지 일대 총 36필지 5807㎡에 대해 새로운 지적도면을 제작, ‘지적불부합지(地籍不符合地)’에 대한 민원을 해결했다.

이와 같은 지적불부합지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께 총독부 토지조사국의 지적측량 잘못으로 건축부지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게 공부가 만들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 첨단지구
상가 임대 : 60m 대로면 2,3층 450평(분할가능) [권장업종 : 병원, 사무실, 학원 기타]
첨단지역 변화가이며 1층에 옷매장들이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학원, 사무실용으로 적합함
450평(조립,제조 회사 가능) 주차대수 30대
- 공장 :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공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 첨단지구 : 상업지역토지, 모델부지, 상가건물 모델, 무인텔, 매도(다수보유)
- 첨단지구 : 상가임대, 음식점, 음악점, 레스토랑(다수보유), 1층분화기; (옷매장 약 60평 임대)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회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특별 분양(할인 프리미엄 적용)

<총 1096세대>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 (구, 33평) 로얄층 / 164㎡ (구, 49평) 로얄층
191㎡ (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142㎡ (구, 43평) 로얄층 / 로얄층

- ▶ 112동 1002호
- ▶ 112동 1102호
- ▶ 112동 1201호
- ▶ 112동 1202호
- ▶ 112동 1302호
- ▶ 112동 1402호
- ▶ 113동 1004호
- ▶ 113동 1204호
- ▶ 113동 1404호
- ▶ 114동 1101호
- ▶ 114동 1301호
- ▶ 114동 1401호
- ▶ 123동 402호

■ 주변 소풍터운 / 교통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로서 투자까지 상승 기대

인주민들의 찬사를 받고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임.

상담문의 062) 368-0789 H.P 010-2587-8552

효성공인중개사

011-602-4207 ☎ 521-6024 (FAX) 521-6026

공장매매

하남공단 4차선 9번로변

- 대지 4,959㎡ (1,500평)
- 건물 2,176㎡ (658평)
- 호이스트 5t, 10t (층고 9m)
- 매매가 22억 5천만

평동공단내 2번도로점

- 대지 3305㎡ (1050평)
- 건물 1983㎡
- 공장층고높이 : 6m~8m
- 호이스트 없음 (설치가능)
- 전기 : 300kw
- 매매가 : 13억원

전자조립, 물류창고 기타제조업 적합

금산공인중개사

T.881-5868 H.011-801-5354 (서평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 ⑤ 상무신도심 중심 상업, 문화지구

※ 10층 신축건물 옆 코너

부동산 담보대출

- 아파트 후순위 대출 (시세의 90%)
- 임대아파트 특별대출 (임대금액의 80%)
- 주택·논밭·임대나대지 추가대출

최저금리 분할 상환 가능

금융(부동산 투자) 고소득 안내

- 사업확장고령자(퇴직자우대) 이사 초빙
- 안전한 금융투자 (부동산 담보) 사업안내
- 1억투자→월이자 150만원~250만원
- 2억투자→월이자 300만원~350만원
- 1천투자→월이자 25만원
- 3천투자→월이자 70만원

- 법무사, 업무대행
- 철저권리분석
- 등록번호 서구 제 482호
- 금리연 24~49%

한국금융투자개발

☎ 374-2760